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발족 선언문

1995/6/26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이 땅의 모든 동성애자, 게이 커플들에게

오늘 1995년 6월 26일 마침내 한국의 동성애자들의 자신의 권리의 결실을 맺고, 자신을 피난하고 보편적인 보편적 행복 자신의 권리로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25년간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누려온 인권들을 자신들을 위한 목표로 외향함으로써 수포기간 지옥적이던 동성애와 동성애자. 대한 외압과 차별을 마침내 제거하게 되었다. 우리 역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동성애자들에게 대한 혐오와 피난을 갖지 않도록 자신의 힘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우리들이 활동하고 온 모든 것의 궁극적 목표는 인권인권을 동성애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성애에 관련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함, 인권운동에서 인권운동의 원리를 실천하고 연대함으로써 변혁한다. 이므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인권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 삶의 질과 인권의 향상을 공동 목표로 삼아내고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를 실천함으로써 인권운동의 원리를 이 땅의 모든 동성애자, 게이 커플과 모든 이성애자들에게 자신의 행복을 알리고, 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알리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동성애자 인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인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수많은 이성애자들이 생각하는 성은 남자 성적 지향성만이 유일하고 정상적이다. 이와 다른 유류의 성적 지향성은 표류이고 비이므로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동성애 역시 이성애와 같은 유리한 사물과 생의 제도이므로, 이를 자신의 힘으로 받아들이는 이성애와 같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유류가 유리한 사가 사회를 만들어 모든 사람이 유리한 사회가 아니다, 모든 유류가 유리한 사회가 아니다, 모든 유류가 유리한 사회가 아니다, 모든 유류가 유리한 사회가 아니다. 동성애를 표하 고 부인 하는 그의 인 간 적 감과 인 간 적 노력, 그것은 동성애의 추진 과 부인 하고, 이것이 많은 이성애의 삶을 차별 하고 있다는 사실 을 부인 하는 정의 행위 다름 아니 다. 다시 한 보람 하는 나와 동성애와 동성애자 를 차별 하는 다른 것 이 아니 다. 동성애자 를 차별 하는 모든 것 이 동성애자 를 차별 하는 것 이 아니 다. 동성애자 를 차별 하는 모든 것 이 동성애자 를 차별 하는 것 이 아니 다.

다음 동성애자 참여되고 연속 되어 있는 사실 이 아니 다. 우리는 기원 하고 동성애를 추진 하고 연속 되는 동성애자 의 삶의 질을 향상 하고 인간 적 행을 만들 수 있을 것 이 아니 다. 우리는 동성애자 의 자신 과 인간 적 행을 만들 수 있을 것 이 아니 다. 우리는 동성애자 의 자신 과 인간 적 행을 만들 수 있을 것 이 아니 다. 우리는 동성애자 의 자신 과 인간 적 행을 만들 수 있을 것 이 아니 다. 우리는 동성애자 의 자신 과 인간 적 행을 만들 수 있을 것 이 아니 다. 우리는 동성애자 의 자신 과 인간 적 행을 만들 수 있을 것 이 아니 다. 우리는 동성애자 의 자신 과 인간 적 행을 만들 수 있을 것 이 아니 다.

적 지향성을 이해하고자 애쓰는 많은 동성애자들을 자기혐오와 절망으로 몰아가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물론 동성애자는 동성애자 공동체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는 삶의 최소단위인 가족에서부터 학교와 직장에 이르는 공중영역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동성애자는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이해하고 자신과 동일한 성적 지향성을 가진 이들과 교류할 기회를 막달려왔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그 어떤 관대함과 이해도 구할 수 없는 상황 탓에 비롯된 부정적 결과일 뿐이다. 우리 역시 비밀상적이고 상업화된 동성애자 공동체의 문화를 우려하고 비판한다. 하지만 문젠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긍지와 용기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우리들이 보다 자유롭고 건강하게 친교와 상호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다. 결국 동성애자들에 강요된 은폐와 침묵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동성애를 새로운 삶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족의 위기, 권력있는 이권층의 양심, 젊은세대 파랑새식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성과 사랑의 계보들, 대중문화를 역원하고있는 신중 또한 문화와 생활의 구상들이 우리를 혼란시켜왔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의 양상을 통해 이미 이산문화 정체성에 무조건적으로 부여했던 가치와 권위가 심각하게 붕괴하고 있고, 또한 이성애가 누리왔던 그 모든 완벽한 보편성 역시 회의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심각한 이성애의 위기가 보수화되고 자신과 성적 지향성을 달리하는 집단에 대한 혐오와 양호로 귀결되는 보편적, 심각한 후회없이 말할 수 없다. 우리는 공포증과 만류이 되어 범람하는 동성애혐오증은 바로 불치의 질병을 투기로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병리화하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본보기일 것이다.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생명도, 도덕적 계양도, 윤리적 정절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전염병이며, 그것은 삶의 인종을 초월하여 어느 누구에게나 감염의 기회가 열려있는 전염병 뿐이다. 도덕의 에이즈에 부착되어있는 그 난폭한 의미들 폐이동을 막아 비로소 우리는 그 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젠은 우리 시대의 성과 사랑에 대한 새로이 보석하고, 그들 통해 보다 나은 삶의 가능성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동성애지인연합회협의회는 이 모든 문젠을 심면의식 응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동성애자에게 가해진 온갖 모욕과 비난을 물리치고, 자양감과 희망을 품은 동성애자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 스물일 양정 26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는 6월의 마지막 주를 동성애자 인권주간으로 선포하며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그 어느 때보다도 뜻있게 되새기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견뎌야했던 침묵과 공포는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만 금지와 자유의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자유와 권리를 새로이 이해하는 역사적 시대의 빛깔을 얻 것이다.

동성애지인연합회협의회:

스물일양정양정

우리의 주장

1995/6/26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1. 동성애자에 대한 모든 인격적 모욕과 비난을 중지하고, 이들이 가진 성적 지향성을 해악시하고 부정하는 모든 의학적, 법률적, 교육적 관행을 중단하라.
2. 언론매체는 동성애와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한 그간의 보도관행을 반성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적이고 민주적인 태도를 견지하라.
3. 자신의 동성애적 성적 지향성을 밝힌 동성애자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의 침해와 모욕을 중지하라.
4. 에이즈를 동성애자의 역병으로 호도하는 사이버 의학적 선전을 중단하고, 에이즈예방과 치료에 관련된 사회적 방위체계에서 동성애자를 특별히 관리하고 규제하여온, 그간의 시도를 중단하라.
5. 동성애인권운동에 대한 사회적이고 공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동성애에 대한 관용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라.

이 위성에 큰데는
사회운동이슈
리뷰 30년
북경

2000 3월 15일
가림 형이 동성애
리뷰와 3월 15일
60년 경제신문 재판이
리뷰

또한 이고.

인간 권리와
성적 지향성
연관성
연관성
연관성
연관성

1995 6. 26.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리뷰
새로운 연
수업자료

회원단체:

- 친구사이(남성동성애자인권모임) 30200
- 끼리끼리(여성동성애자인권모임) 40
- 결투게더(연세대학교동성애자인권모임) 20
- 마음001(서울대학교동성애자인권모임) 10

각 단체 활동연혁

1995/6/26

한국동성애 인권보존회

'끼리끼리':

'끼리끼리'는 '여자끼리의 사랑, 남자끼리의 사랑'의 줄임말임과 동시에 동성애자임을 숨기며 뽀뿌이 흩어져있기보다는 일단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힘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다. '끼리끼리'는 한국 동성애 여성들의 모임으로 1994년 11월 27일 5명으로 정식 발족, 현재 30여명이 활동중이다. (회장: 이혜솔)

'끼리끼리'의 취지와 목적

첫째, 강제적인 이성애제도 속에서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숨기며 살아가야하는 여성동성애자들이 불안과 고립감에서 벗어나 마음놓고 서로의 마음과 생각들을 교류하고 친목을 다지는에 주력한다.

둘째,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일반의 그릇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는에 힘쓰며 소식지와 그밖의 여러 행사들을 통해 동성애의 정당함을 알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사회를 향해 나아간다.

셋째, 학술부, 문화예술부등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 전무한 레스비언 문화를 일구고 학문탐구와 토론을 통해 역사속에서의 자신감을 인식하고 정립하는 기회를 갖는다.

넷째, 동성애억압과 여성억압을 비롯한 모든 인간억압에 반대하며 누구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성, 계급, 문화, 인종, 사상, 신체적 조건등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일조한다.

다섯째, 국내외 동성애인권단체, 우리와 생각을 같이하는 다른 인권단체와 교류, 협력하여 동성애자들의 인권 향상을 도모한다.

'친구사이':

'친구사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동성애자인권단체(남성동성애자 모임)로 동성애자로서의 자긍심과 인권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 1993년 12월 초동회로부터 시작되었다. 활동사업은 동성애자 인권 보호, 동성애 상담 전화운영, 에이즈 예방 및 퇴치운동, 친목활동, 문화행사 및 소식지 발간 등이다. (회장: 이범)

1993년 12월 초동회(친구사이전신) 발간

1994년 1월 25일 소식지 '초동회' 제1호 발간

1994년 2월 7일 초동회에서 분리 '친구사이' 발간

1994년 3월 제2호 소식지 '친구사이' 발간

1994년 4월 16일 세미나 개최 (종교, 인권, 학계 등 인사 초청)

1994년 4월 24일 '친구사이' 첫 야유회 개최 마션 수동 캠프

1994년 5월 1일 영화의 밤 개최 동성애 영화 '오코계' 상영

1994년 7월 KBS TV '수적60분'출연 7월 31일 방영

1994년 8월 전북대학교 방송 인터뷰

- 1994년 8월 13/14일 회원 여름캠프 운영리 배수유장 1박 2일
- 1994년 8월 27일 제 2기 회장단 선출
- 1994년 9월 '사회평론 길' 의 다수 언론사 인터뷰 (일요신문, 일요서울, 테이디경향, 여성중앙,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 1994년 9월 11일 사무실 이전 (마포구 연남동 소개)
- 1994년 10월 2일 '친구사이' 체육대회
- 1994년 10월 9일 '김한길의 MBC 초대석' 출연 10월10일 방송
- 1994년 11월 위대교지 인터뷰 '원손잡이와 오손손 잡이는 다르지 않다.'
- 1994년 12월 24일 한국최초의 동성애자 수기집 '어떤 더 이상 슬프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발간
- 1995년 1월 수기의 송고를 위한 인터뷰 (시사저널 1월호, 동아일보 1월 15일자, 선경그룹 '적성과 패기' 1월호, 일요서울 1월 25일자, 여성동아, 권 2월호 등)
- 1995년 2월 8일 '소식지 8호' 발간
- 1995년 2월 11일 월간 '만'지 인터뷰
- 1995년 3월 6일 DSN 심리탐구 '판도라의 상자' 출연
- 1995년 3월 마이TV '사랑과 우정사이' 출연
- 1995년 3월 10일 이화여자대학교 라디오 방송 '우리시대 삶의 소리' 인터뷰
- 1995년 4월 26일 여신학자 협의회 가정과 여성 세미나 '동성애' 참가
- 1995년 5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3의 성' 출연
- 1995년 5월 13/14일 친구사이 상반기 MT

'점부개더'

'점부개더'는 지난 3월말에 조직된 국내 첫 대학공동체 내의 레즈비언/게이 모임으로 연세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레즈비언/게이들에 의해 구성되었다. '점부개더'는 동성애라는 자신의 성적 지향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심리적 위기를 극복하고, 동성애자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며, 대학공동체 내에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집단의 권리를 옹호하고자 한다. 현재 '점부개더'는 서울대의 '마음001'과 함께 연합모임을 조직하여 동성애의 역사와 동성애자인권운동의 전개과정을 함께 연구/평가하고,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성에서 비롯되는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등의 일상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간사: 서동진(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

'마음001'

'마음001'은 서울대학교의 동성애사 모임으로 올해 5월 29일에 정식 출범하였다. 보다 열린마음의 세상, 바꾸어 말하면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 가능한 민주적 세상을 소망한다는 뜻에서 마음이라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001이란 100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우리나라의 동성애자인권 수치불 못한다. '마음001'은 피난처 형식으로 운영되는 모임이다. '마음001'은 스스로의 성적 정체성과 스스로의 사회적 존재사이에 존재하는 벽을 수 없는 산과 속에서 야기되는 심리적 혼돈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동성애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 '사 하며, 내학을 비롯한 우리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모든 성적 부조리 상황을 바로잡고자 한다. 주요활동은 일주단위로 진행되는 패널모임, 상담활동, 소식지 발간과 연세대학교 레즈비언/게이 모임 '점부개더'와의 공동 소식지 발간 등이며, 하반기에는 성식동아리등복을 위한 가동복 제작할 람을 예정이다.(대표간사: 이성우(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재학생))